

호남대 RISE사업단 재학생 6명 ‘CES 2026’ 무대 선다

6~9일 지역 기업 기술·제품 홍보 ‘광주 공동관 프리젠티어’ 활동
학생, 현장 경험·외국어 역량 강화...기업, 해외 홍보 효과 기대

호남대학교 RISE사업단의 융합전공 참여 학생 6명이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6’에서 광주지역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활동에 들어갔다.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로봇, 모빌리티, 웹툰, 디지털 헬스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과 제품이 대거 공개되며,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약 4500개 기업이 참가해 혁신 기술과 트렌드를 선보인다.

호남대 RISE사업단 융합전공 참여 학생 6명과 이은경 지도교수(기계자동차학과)는 오는 9일까지 ‘CES 광주공동관’에서 광주지역 6개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자원 프리젠티어 역할과 함께 AI 신기술을 참관하게 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은 항공서비스학과 나연수(엘비에스테크·중국어), 전기공학과 최

현우(센도리·영어), 간호학과 박소정(정선메드·영어), 간호학과 방유진(영앤·영어), 컴퓨터공학과 김영준(올더타임·영어), 항공서비스학과 황형주 학생(스페이스에이아이·영어) 등 6명으로, 지역 기업과 일대 일로 연계해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들은 지난해 9월에 모집한 ‘외국어 프리젠티어’에 지원해 1차 서류평가와 2차 인터뷰 평가, 오리엔테이션과 기업연계 직무교육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제품 설명, 해외 바이어 응대, 부스 운영 보조 등 실질적인 글로벌 산학협력 능력을 키웠다.

이번 프로그램은 RISE사업의 핵심 목표인 ‘지역 산업 연계 실무형 인재 양성’ 사업의 하나로, 학생들에게는 글로벌 전시 현장 경험과 실전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고, 지역 기업에는 전문 인력을 통한 해외 홍보 및 네



호남대학교 RISE사업단의 융합전공 참여 학생 6명이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6’에서 광주지역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은 ‘CES 2026’ 전시회에 참여하는 호남대 RISE사업단 학생들. (사진 왼쪽부터 김영준, 황형주, 최현우, 박소정, 방유진, 나연수 학생)

트워킹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지도교수로 참여하는 이은경 부단장은 “CES 광주공동관 프리젠티어 운영은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학생들의 현장 중심 글로벌 역량을

높이는 대표적인 산학협력 사례”라며 “앞으로도 RISE사업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여수상공회의소, 1억 규모 섬박람회 입장권 구매약정

지역 경제계 참여 확산 신호탄

(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5일 여수상공회의소와 1억원 규모의 입장권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2026년 새해 첫 구매약정으로 조직위는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여수상공회의소의와 협력을 통해 입장권 사전 판매 확대와 섬박람회 붐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섬박람회는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과 섬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국제행사다”며 “새해 첫 구매약정 기관으로서 지역 경제계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기명 조직위원장(여수시장)은 “2026년 새해 첫 구매약정 체결은 섬박람회 입장권 판매와 참여 분위기 확산의 의



(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5일 여수상공회의소와 1억원 규모의 입장권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미 있는 출발이다”며 “여수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공공기관, 기업, 단체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섬박람회 성공 개최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전남도와 여수시가 공동주최하며, (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제 행사다.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61일간 돌산 진도지구, 여수세계섬박람회장,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장성군, ‘으뜸마을 만들기’ 성과 특목

143곳 참여...올해 200만원 장려금 추가 지원

장성군이 지난해 추진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마을 환경 개선과 공동체 화합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6일 장성군에 따르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마을의 청정 자원을 주민 스스로 관리·보전하고, 주민 참여를 통해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전남도 특화사업이다. 사업 대상 마을에는 연간 500만원의 사업비가 3년간 지원된다.

지난해 장성군에서는 총 143개 마을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신규 참여 마을만 52곳에 달해, 역대 가장 많은 마을이 새롭게 으뜸마을로 지정됐다. 각 마을은 화단·마을정원 조성, 경관조형 설치, 이 야기가 있는 벽화 그리기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하며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공동체 결속력을 높였다.

특히 장성읍 청은2동 △진원면 삼립2리 학동마을을 △남면 분향2리 △황룡면 금호리 △서삼면 금계1리 등 5개 마을은 전남도 평가에서 ‘우수 마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장성군이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이후 최대 우수 마을 선정 기록이다.

‘우수 마을’로 선정된 5개 마을에는 올해 사업비에 200만원의 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되며, 마을의 성과를 알리는 현판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장성군의 적극적인 현장 중심 행정이 자리하고 있다. 군은 ‘으뜸마을 만들기 워크숍’과 ‘찾아



장성군이 지난해 추진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마을 환경 개선과 공동체 화합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우수 마을로 지정된 서삼면 금계1리.

가는 자체 컨설팅’을 운영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폈다. 이를 통해 마을 대표들이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전문가의 맞춤형 자문을 받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청정전남 으뜸마

을 만들기’ 사업의 핵심은 사업 결과뿐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공동체 의식”이라며 “올해도 장성의 마을들이 저마다의 색깔을 살린 살기 좋은 으뜸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마리엘리, 초록우산에 500만원 상당 물품 후원

단호박죽·단팥죽 등 1000개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는 6일 식품 전문 기업 마리엘리로부터 간편영양식 ‘굿포밀’ 제품 5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굿포밀 단호박죽과 단팥죽 등 총 1000개로, 광주가정위탁

지원센터를 통해 조손가정과 지역 내 가족돌봄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마리엘리는 항암치료를 받는 아버지를 위해 영양사이자 식품연구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한 끼를 고민한 끝에 ‘굿포밀’을 개발했다. 이후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수출과 인천 국제공항 면세점 입점 등을 통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심화경 마리엘리 대표는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만든 굿포밀을 초록우산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이 한 끼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변정근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장은 “가족을 향한 진심에서 출발한 기업의 나눔이 지역 아동과 이웃들에게 새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김형준 신임 광주보훈병원장 취임

“보훈 의료 안정적 수행 총력”

광주보훈병원은 최근 전문진료센터 3층 보훈홀에서 김형준 제16대 병원장(사진)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김형준 신임 병원장은 취임식에서 임직원과 함께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의료의 역할과 기능, 향후 방향에 대해 뜻을 나눴다.

또 의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조직 내부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조직 문화 개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안결형 필수의료 역량 향상



계획도 밝혔다.

김형준 신임 병원장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이자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의무”라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집 가까운 곳에서 제때 불편함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한 보훈 의료로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뇌혈관질환, 감염병, 응급의료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의료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공공의료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 동구청 직원들이 6일 청사 접견실에서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 동구청 직원들, 2026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총 393명 682만원 모금해 지역돌봄 이웃 지원

광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6일 ‘동구청 직원 393명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682만6000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동구청사 접견실에서 열린 ‘희망2026나눔캠페인 동구청 직원 성금 전달식’에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와 동구청 직원들이 참석해 성금 전달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달된 성금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동구 지역 내 돌봄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동구는 매년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눔이 일상화 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지역사회를 돌보는 ‘동구형 인문행정’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매년 이어지는 동구청 직원들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인문도시 동구는 사람 중심의 36.5℃ 행정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참여가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본사방문

-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
- ▲박준영 "본부장
- ▲정일선 광주은행장
- ▲이상채 "부행장(경영지원본부)
- ▲신충식 "브랜드전략부장

